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김민경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의 자기의 이중성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특징이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주어 사회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427명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자기제시동기 척도, 자기제시기대 척도, 정서표현갈등 척도, 사회불안 척도)를 완성하게 하고,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경우 두 변인의 차이가 사회불안을 유발하므로, 그 점수 차를 하나의 매개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정서표현갈등 각각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매개변인을 모두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가 좋지 않았으나, 매개변인간의 경로를 연결한 수정모형의 경우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제시동기와 기대의 차이, 그리고 정서표현갈등이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변인간의 경로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하나의 갈등상태일 가능성을 제안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Fax : 02-816-5124 / E-mail : hyunmh@cau.ac.kr

수치심(shame)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다. 수치심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자기(self) 전체에 대해서 부족하고 결여되었으며, 부적절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자아의식에서 발생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Kaufman, 1989). 수치심은 보통 거부나 조롱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며, 이와 비슷한 표현에는 수줍음(shyness), 당황(embarrassment), 치욕(mortification), 굴욕감(humiliation) 등이 있다.

수치심은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보통은 곧 사라진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격렬하게 느끼는 수치심을 상태수치심(state shame)이라고 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상태수치심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양심을 형성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심이 단순히 한순간 느끼고 지나가는 정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성격 특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전반적이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수치심을 특성수치심(trait shame; Goss et al., 1994) 혹은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 Cook, 2001)이라고 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아정체감으로 내면화되어 열등감과 부적절감, 그리고 부족감을 깊이 느끼는 것이 특징인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이라고 정의된다.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수치심 정서가 포함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 무가치감 같은 부정적인 속성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성격인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shame-based identity)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가치 없고 부적절한 존재로 왜곡해서 인식하게 된다(Kaufman, 1989). 이들은 자신을 모자라고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 없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무가치한 모습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자기(false self)를 만들어 낸다(Bradshaw, 1988). 또한 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감정과 충분치 못하다는 감정에 고착되어 그런 자신을 만회하기 위해 완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거짓자기로 위장해서 겉으로 화려한 자기를 연출해 보이기도 한다(정은렬, 2007).

이렇듯 이들은 참자기에서 거짓자기를 발생시켜 자기의 이중성(duality of self)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자기가 분리되어 기능하며 통합성이 상실된다(Lewis, 1971)는 것이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자기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자기는 한 단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Capps, 1993).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인지,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기분리 현상으로 인해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많은 병리 현상의 기초가 된다.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가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Scheff, 1988)인 까닭에 대인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인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불안의 핵심적 인지 특징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서(Marks, 1969; Nichols, 1974), 사회불안은 평가 불안으로 볼 수도 있다(Gilbert & Andrews, 1998). 수치심이라는 개

넘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그것을 예상할 때의 걱정을 포함하고 있다(Lewis, 1985). 즉,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대인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Harder & Zalma, 1990).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Lewis, 1971). 많은 연구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사회불안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Harder & Lewis, 1987; Lutwak & Ferrari, 1997). Tangney, Burgraf와 Wagner(1995)도 사회불안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수치심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온 기존 연구는 주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자신의 열등하고 부족한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고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사회불안을 설명하고 있다. 무가치한 모습의 노출 또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회불안을 설명하려는 접근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통한 설명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이 수치심이 내면화된 참모습을 억압하고 거짓자기를 진짜 모습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특성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중적인 자기라는 구조를 통해 나타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과 자기의 이중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의 자기의 이중성은

자기제시이론(self-presentation theory; Leary, 1982)에서 말하는 사회불안의 유발조건과 관련이 있다. 자기제시이론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인상을 주려고 동기화(자기제시동기)되어 있지만 이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자기제시기대)를 의심할 때 사회불안이 발생하며, 이들의 차이가 클수록 사회불안이 커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특정한 인상은 많은 경우 긍정적인 특성을 말하지만 반드시 우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 하거나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 무능한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Leary & Kowalski, 1990; Leary & Miller, 1986). 자기제시동기는 인상감찰, 원하는 산출물의 중요성과 가치, 자기상과 자존심 및 인정추구와 관련이 있으며, 자기제시기대는 대인관계적 부담과 자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 인지적 평가의 함수이다. 대인관계적 부담은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 주의, 노력 및 의식적 사고의 정도를 말하고 자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의 거짓자기와 참자기는 사회적 상황에서 서로 분리되어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짓자기는 결함 있고 무가치한 참모습을 방어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참모습을 감추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방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 모습대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수치스러운 모습이 들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거짓자기는 어떤 특정한 인상으로 타인에게 보이려는 동기인 자기제시 동기를 높일 것이다.

반면, 기저에 있는 참자기는 자기를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고 스스로를 작고 무기력하게 느끼므로, 타인에게 특정 인상을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자기제시기대)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이 정체성에 자리 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중적 자기 중 거짓자기는 자기제시동기를 높일 것이고, 참자기는 자기제시기대를 낮추어 사회불안을 유발할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적 문제를 통해서도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경험하는 반면,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고 방어하게 된다. 수치심은 가장 지배적인 감정 중 하나로서, 일단 수치심이 자리 잡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Bradshaw, 1988). 예를 들어, 분노감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면 화를 낼 때 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이를 억압하게 된다. 수치심은 분노와 슬픔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낄 때도 동반된다. 이렇듯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자기의 이중성으로 인해 정서표현의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정서표현갈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란 ‘정서를 표현하고 싶으나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

(King & Emmons, 1990)을 말한다.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을 겪는 사람은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와 표현하지 않으려는 욕구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표현을 억제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표현의 억제는 적극적 억제로서 의식적으로 구속하고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며,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행동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최해연, 민경환, 2007). 이러한 정서표현갈등은 크게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표현 갈등과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표현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자기가 수치심에 묶인 감정을 억압하려는 경향성을 보일 때, 참자기로부터 분리된 거짓자기는 이것이 수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를 떠올리며 정서표현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서표현갈등은 통합성이 상실된 두 개의 자기로 인해서 해소되지 못하고 양가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정서표현 억제와 더불어 기저에 긴장감과 불편감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표현갈등 상태를 유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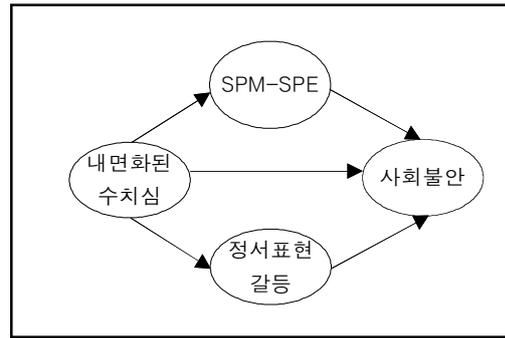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서표현에 갈등을 경험하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게 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긴장감을 유발하고 정서경험을 왜곡하기도 한다. 왜곡된 정서는 부적응적인 2차 정서를 유발하여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Greenberg, Rice, & Elliot, 1993). 또한 정서표현갈등은 반추와 관계가 있어서 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상황을 떠올려서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다(King, Emmons & Woodley, 1992). 이러한 긴장감과 불편감은 정서표현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 빠지는 것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후반추사고와 예기불안은 사회불안

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의 행동적 표현은 정서 경험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하여 내적 조절을 돕는다(Traue, 1995). 이러한 조절 기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 사람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해준다(Mongrain & Vettese, 2003). 정서 표현에 갈등을 겪는 사람은 표현 행동을 통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다(Swinkels & Guiliano, 1995). 또한 정서표현은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서표현을 잘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 받고, 더 많이 눈에 띄며, 사회적 지지를 잘 이끌어 낸다. 예를 들어, 슬픔이나 아픔의 표현은 사회적 지지와 애정 표현을 유도하고, 염려는 사회적 결속과 친밀감을 이끌어 낸다(Kennedy-Moore & Watson, 1999).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을 유발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서표현의 역제는 대인상황에 필요한 사회기술의 결핍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사회기술의 부족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정서표현갈등이 대인민감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불안의 특성은 대인민감성을 정의하는 여러 측면(대인 경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오해, 열등감에 대한 사고, 비주장적 행동, 대인 상황에 대한 회피)과 일치한다(Rapee, 1995; Turk, Lerner, Heimberg, & Rapee, 2001).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정서표현갈등이 가진 특성에서 유추해 볼 때 정서표현갈



주) SPM: 자기제시동기(Self Presentation Motivation),
SPE: 자기제시기대(Self-Presentation Expectancy)

그림 1. 연구 모형

등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표현갈등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심이 정체성에 자리 잡은 사람의 자기의 이중성에 주목했으며, 이것이 사회적 상황에 나타날 때 자기제시동기를 높이고, 자기제시기대를 낮추며, 또한 정서표현갈등 높여 사회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때 자기제시동기가 높고, 자기제시기대가 낮은 상태가 동시에 만족될 때 사회불안이 유발되므로 두 변인간의 차이를 하나의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성의

없이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42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대상자는 남성 175명, 여성 252명이었고, 나이는 만 18세~29(M=20.40, SD=2.12)세였다.

측정 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Cook(1987)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반응편향성을 막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자존감 척도의 6문항은 수치심 점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은 부적절감(10문항), 공허(5문항), 자기 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이라는 4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평정은 '그런 경우가 없다(0)'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의 5점 척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수치심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수치심의 수준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Cook, 1987).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자기제시동기

김남재(1999)가 개발한 자기제시동기 척도(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를 사용하여 성향적 자기제시동기를 측정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자기제시기대

조용래와 원호택(1997)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자기제시기

대를 측정하기 적합한 지시문과 평정 방법으로 수정한 김남재(1999)의 자기제시기대 척도(Self-Presentation Expectancy scale: SP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해 11점 척도(0: 목적인 인상을 전혀 주지 못할 것이다, 10: 목적인 인상을 주는데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정서표현갈등

하정(1997)이 번안한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갈등 질문지(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10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18문항의 총 28문항으로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하여 점수의 총 범위는 28점~196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표현갈등 .87,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89, 전체 척도는 .92이었다.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한혜림(2004)이 재구성한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의 편포를 막고 개인 간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래 진위형이던 질문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심하게 그렇다)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회피 14문항, 사회불안 14 문항의 총 28 문항 중 사회불안과 관련된 14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자료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의 매개효과와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7.0을 이용하여, 두 매개 변인이 모두 포함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 표준카이제곱치(normed χ^2),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사용하였다. GFI, AGFI, CFI, NFI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9 이상이면 우수한 모델로 평가된다. RMSEA은 0.1 이하일 경우,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 이하는 매우 잘, 0.01 이하는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Steiger, 1990).

연구 결과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차이의 매개효과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제시동기($R^2=.085$, $\beta =.292$, $p<.001$)와 자기제시기대($R^2=.114$, $\beta =-.338$, $p<.001$)를 예측하였다. 자기제시기대는 사회불안을 예측했으나($R^2=.225$, $\beta =-.505$, $p<.001$), 자기제시동기는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R^2=.008$, $\beta =.092$, $p=.058$).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절차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는 두 번째 조건보다 세 번째 조건에서 감소되어야만 한다.

표 1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며 독립변인의 효과는 두 번째 조건($\beta = .41$)보다 세 번째 조건($\beta = .31$)에서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Sobel(1982) 검증을 한 결과 감소한

표 1. 자기제시동기와 기대 차이의 매개효과

	R^2	F	β
내면화된수치심 → SPM-SPE	.196	103.92***	.44***
내면화된수치심 → 사회불안	.169	86.19***	.41***
내면화된수치심 SPM-SPE			.31***
→ 사회불안	.212	56.98***	.23***

*** $p < .001$

주) (SPM-SPE)는 자기제시동기와 기대의 차이

정도가 유의하여($Z = 4.394, p < .001$)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도 Baron과 Kenny (1986)의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표 2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며, 독립변인의 효과는 두 번째 조건($\beta = .41$)보다 세 번째 조건($\beta = .32$)에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Sobel(1982) 검증 결과, 효과의 감소 정도가 유의하여($Z=3.919, p < .001$), 정서표현갈등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매개 모형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정서표현갈등

표 2.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R^2	F	β
내면화된 수치심 → 정서표현갈등	.201	106.67***	.45***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169	86.19***	.41***
내면화된 수치심 정서표현갈등			.32***
→ 사회불안	.200	53.08***	.20***

*** $p < .001$

모두가 매개모형으로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92 정도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Dilon & Goldstein, 1984). 다변량 분포의 경우 잔차항의 영향이나 계열 상관이 없다면 정상성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모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연구 모형에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그리고 사회불안은 단일지표를 사용하였다.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경우, 두 척도의 점수 차를 계산한 것으로 신뢰도 측정이 어려우므로, 요인적재량의 값을 1로, 측정오차의 값을 0으로 고정시켰다(Kelloway, 1998). 사회불안의 경우, 단일지표를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적재량을 1로 측정오차를 $(1-\alpha)\sigma^2$ 로 고정시켰다(Hayduk, 1987).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105.280, df = 17, Q = 6.19, GFI = .940, AGFI = .874, CFI = .906, NFI = .891, RMSEA = .110$ 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수정지수와 해석가능성에 기초하여 수정모형을 찾아보았다. 회귀계수 가운데 자기제시동기와 기대의 차이에서 정서표현갈등으로 가는 경로의 수정지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21.270), 이론적 설명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경로를 연결하였다.

수정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 = 73.712, df = 16, Q = 4.607, GFI = .958, AGFI = .906, CFI = .939, NFI = .924, RMSEA = .092$ 로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χ^2	df	Q	GFI	AGFI	CFI	NFI	RMSEA
연구모형	105.280	17	6.19	.940	.874	.906	.891	.110
수정모형	73.712	16	4.607	.958	.906	.939	.924	.092

주.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NFI,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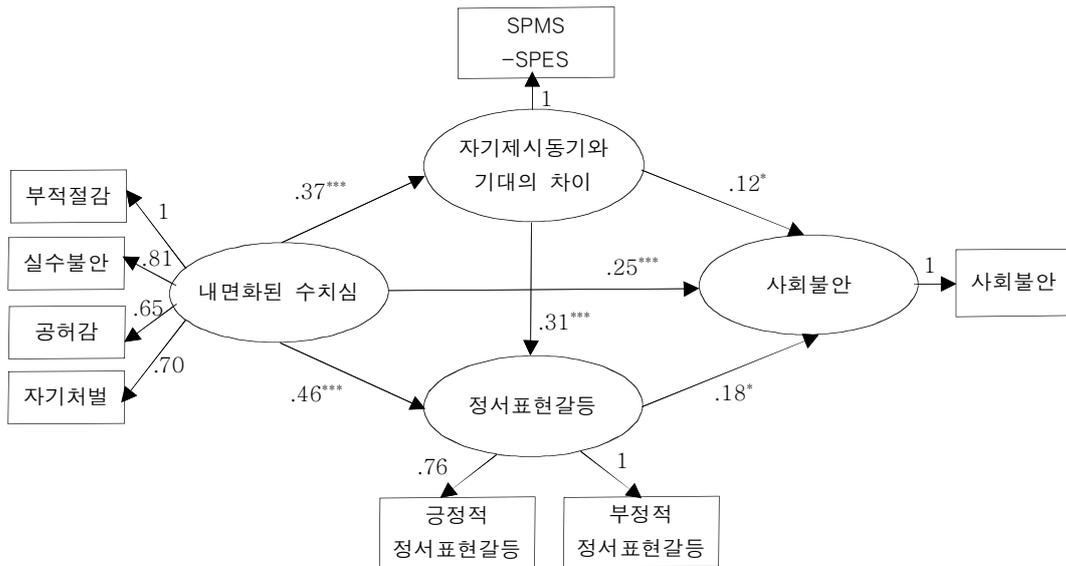


그림 2. 수정 모형

* $p < .05$,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시대, 정서표현갈등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시대의 차이, 정서표현갈등 두 변인 각각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가지 변인 모두를

포함한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시대의 차이에서 정서표현갈등으로 경로를 연결한 수정모형을 가정하였고 이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자기제시동기가 높고 자기제시시대가 낮은 상태가 사회불안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Harder & Lewis, 1987; Harder & Zalma, 1990; Lutwak & Ferrari, 1997;

Leary & Kowalski, 1993; Leary & Meadows, 1991; Wallace & Alden, 1991). 또한 정서표현갈등도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과 불편감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시 경험했던 긴장감과 불편감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기 불안을 일으켜서 사회불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친밀감 등의 이점을 이끌어 내지 못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여하는 매개변인을 가정할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내포하고 있는 자기의 이중성에 주목했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자기와 기저에 참자기라는 이중적인 자기 구조가 통합성을 상실한 채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자기제시동기와 낮은 자기제시기대라는 사회불안이 유발되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자기제시동기가 높다는 것은 거짓자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즉 타인에게 거짓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날수록 참자기는 더욱 확실하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제시동기로 인해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많은 주위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참자기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제시기대가 낮아지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인상으로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Leary와 Kowalski(1995)는 자기제시기대가 대인관계적 부담과 자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 인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적 부담은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 주의, 노력 및 의식적 사고의 정도를 말한다. 자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목적인 인상을 제시하기 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기제시적 자원에 대한 평가를 낮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그것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인관계적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 모두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자기제시기대를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때 수치심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에 정서를 억압하려 하는데, 이러한 참자기의 영향이 거짓자기에 작용해서 정서표현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정서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 욕구의 억압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의존욕구가 무시되어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자신은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남에게 기댈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의존욕구를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Bradshaw, 1988). 즉, 자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욕구조차 느낄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어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기본 욕

구를 느낄 때마다 수치심이 동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욕구 중 하나인 정서표현에서도 수치심을 느껴 이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정서 표현의 억제 이전에 정서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서 표현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서 인식 자체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서 표현의 억제가 정서 경험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가지 매개변인을 하나의 모형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나 확신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되는 상태 모두 하나의 갈등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갈등상태란 개인내부에 강도가 비슷한 두 개 이상의 욕구나 동기가 동시에 발생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나 동기의 갈등상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기제시동기가 높고 자기제시시대가 낮은 상태는 하나의 목표에 대해 접근하고 싶은 욕구와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접근-회피 갈등(approach-avoidance conflict; Dollard & Miller, 1950)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Emmons & Kaiser, 1995). 자기제시라는 하나의 목표에 관해서 해야 된다는 동기가 유발되는 동시에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에게 있어 참자기가 가진 무가치감, 부적절감 같은 속성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거짓자기는 참자기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반대되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자기의 이중성은 접근-회피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갈등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시대의 차이에서 정서표현갈등으로의 경로를 연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제시의 문제가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 이것은 특정 정서표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이 좋게 또는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걱정과 그로 인한 정서억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즉, 화가 났지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될까 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을 표현하고 싶지만 겁쟁이로 인식될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지만 가벼워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정서표현갈등의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기제시의 문제를 거쳐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남녀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의 일반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음으로,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자료가 편향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낮은 사람을 선발하여 사회불

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위의 두 가지 매개 변인의 변화를 보는 실험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를 하나의 매개변인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자기제시모형에서는 자기제시동기가 높고 자기제시기대가 낮아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사회불안이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차이가 클수록 사회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상호작용은 알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매개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통합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차이 그리고 정서 표현의 문제와 사회불안이라는 각 변인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각각의 결과를 통합한 연구는 없었다. 즉,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이 자기의 이중성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 사회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하나의 구조 속에서 보여 준 첫 번째 연구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야기된 사회불안의 경우, 성격특성으로 굳은 수치심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을 조절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기제시동기를 낮춰주는 인지치료방법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 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재 (1999).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혜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정은렬 (2007). 수치심의 이해에 기초한 목회상담적 제언. 장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하 정 (1997). 정서표현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 Incorporation.

- Capps, D. (2001). *고갈된 자아의 치유* (김진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3 출판).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Y: Multi Health System Inc.
- Dillon, W., & Goldstein, M. (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Dollard, J., & Miller, N. E. (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 Emmons, R. A., & Kaiser, H. (1995).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L. Leonard, & A. Tesser(Eds.), *Striving and feeling* (pp.79-9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ilbert, P., & Andrews, B. (1998).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13-717.
- Greenberg, L. S., Rice, L. N., & Elliott, R. (1993). *Facilitating emotional change*. NY: Guilford.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729-745.
-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pp.89-114). Hillsdale, H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yduk, L. A. (198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Essentials and Advanc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elloway, E. K. (1998). *Using LISR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Kennedy-Moore, E., & Watson, J. C. (1999).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g, L. A., Emmons, R. A., & Woodley, S. (1992). The structure of inhibi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85-102.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Beverly Hills, CA: Sage.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34-47.
- Leary, M. R., & Kowalski, R. M.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136-146.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Y: Guilford Press.
- Leary, M. R., & Meadows, S. (1991). Predictors, elicitors, and concomitants of social blus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54-262.
- Leary, M. R., & Miller, R. S. (1986). *Social psychology and dysfunctional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5). The role of shame in depression. In M. Rutter, E. E. Izard, & P. B. Read (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pp. 325-339). New York: Guilford Press.
- Lutwak, N., & Ferrari, J. R. (1997). Shame-related social anxiety: Replicating a link with various social interaction measures. *Anxiety, Stress & Coping*, 10, 335-340.
- Marks, I. M. (1969). *Fears and phobias*. New York: Academic Press.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4), 545-555.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 301-306.
-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41-66). NY: Guilford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95-406.
- Sobel, M. E. (1982). *Sociological Methodology*.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80.
- Swinkels, A., & Gui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 Tangney, J. P., Burggraf, S. A., & Wagner, P. E. (1995).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Traue, H. C. (1995). Inhibition and muscle tension in myogenic pain.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urk, C. L., Lerner, J., Heimberg, R. G., & Rapee, R. M. (2001). An integrated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social anxiety.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pp.281-303).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Wallace, S. T., & Alden, L. E. (1991). A comparison of social standards and perceived

ability in anxious and nonanxious 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237-254.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on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원고접수일 : 2012. 8. 30.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0. 04.

2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12. 31.

게재결정일 : 2013. 1. 2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Min-Kyoung Ki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 total of 427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elf-Presentation Expectancy Scal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nd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Baron and Kenny's method(1986)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testing of each mediating effect. Because high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low self-presentation expectancy co-occur to trigger social anxiety, the difference in score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analyzed as one mediator. The results showed both the difference between self-presentation motivation and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However, we modified the model because of unfitness of the previous suggesting model, which includes all mediators. This study found not on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was mediated in part by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ut the conflict of self-presentation influenc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ey words :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